

■ 광주 작가들 해외 나들이 러시

## 빛고을 미술 세계로 세계로



황영성



이돈호



주재현



지원장

광주 작가들이 활발한 해외진출로 침체된 광주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중견 작가들이 해외 전시를 통해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은 물론 젊은 작가들도 중국에서 열리는 글지한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등 미술인들의 해외 나들이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영성씨는 오는 15일부터 11월8일까지 프랑스 생페피엔느 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황씨는 이번 전시에서 대표작인 '가족'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서정성과 미의식을 선보인다. 지난 1월 독일 쿤스달레 미술관 초대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 나들이에 나서는 그는 유럽전시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서예가 학정 이돈호(학정서예원장)씨는 서예의 본토인 중국에서 첫 해외 개인전을 갖는다. 그는 중국 북경 한국문화원 초대대로 오는 10월18~26일까지 열리는

초대전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서체인 '학정체'를 선보인다.

한·중 서예 교류전에 꾸준히 참여해온 그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광주 서예의 자력과 학정체의 독특한 조형미를 담은 작품 60여점을 전시할 예정.

또 중국에서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손봉채씨도 오는 10월 상해 샤인갤러리 초대전을 앞두고 있다.

설치작가 이이남씨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조근호씨는 동양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명상적 풍경을 담은 작품을 출품한다. 강동권씨는 컬러풀한 꽃을 주제로 한 '꽃들의 축제' 시리즈를 선보인다.

오는 11월 개막하는 상해 아트페어에는 진원장, 박태후,

있고, 박소빈씨는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23일까지 미국 뉴욕 텐리(TENRI)갤러리에서 '사랑, 꿈'을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올 하반기에 중국에서 열리는 2007아트 베이징 아트페어(20~23일)와 상해 아트페어(11월15~18일)는 광주미술의 역량을 짐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나인갤러리는 이이남, 강동권, 조근호씨 등 3명을 참여 작가로 선정, '2007 아트베이징 아트페어에 참가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번 아트페어는 전세계 130곳의 회랑 등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광주 작가들의 세계 무대 진출 가능성은 타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작가 이이남씨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조근호씨는 동양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명상적 풍경을 담은 작품을 출품한다. 강동권씨는 컬러풀한 꽃을 주제로 한 '꽃들의 축제'

시리즈를 선보인다.

오는 11월 개막하는 상해 아트페어에는 진원장, 박태후,

주재현, 김유미, 이이남, 강동권씨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진원장 조선대 미대 교수는 현재 출품작을 구상 중이고 금과 은을 캔버스에 부착하는 독특한 화풍을 추구하고 있는 주재현씨는 인도, 아프리카 등지의 일상과 풍물을 통해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해외 관람객들을 만난다.

이 밖에 문인화가 박태후씨는 대표작인 '참새' 연작을, 김유미씨는 미니멀 아트 작품을 출품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황영성씨 佛 전시회…서예가 이돈호씨 中 첫 개인전

베이징·상해 아트페어등 대거 참가 '가능성' 탄진

황영성씨는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23일까지 미국 뉴욕 텐리(TENRI)갤러리에서 '사랑, 꿈'을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진원장 조선대 미대 교수는 현재 출품작을 구상 중이고 금과 은을 캔버스에 부착하는 독특한 화풍을 추구하고 있는 주재현씨는 인도, 아프리카 등지의 일상과 풍물을 통해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해외 관람객들을 만난다.

나인갤러리는 이이남, 강동권, 조근호씨 등 3명을 참여 작가로 선정, '2007 아트베이징 아트페어에 참가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관 어린이 놀이방 개장  
3~7세 유아 대상…보육도우미 상주



광주문화관 대극장 1층 로비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방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아이 걱정 말고 공연보세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 공연이 진행 중인 11일부터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공연이 저녁 시간에 열리는데 7~8세 이하 어린이의 관람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부 관객들은 공연 관람이 여의치 않은 게 사실.

하지만 이번에 문예회관에 어린이 놀이방이 마련됨으로써 주부들도 아이를 맡겨 두고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문화회관 대극장 1층 로비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방은 51㎡ 규모로 냉난방 시설과 소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끄럼틀, 게임기 등 각종 놀이기구와 벽걸이 TV 등도 구비돼 있다.

또 자격증을 갖춘 보육 도우미가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다.

놀이방 이용 대상은 만 3세부터 7세 이하 어린이며 대극장과 소극장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한편 현재 운영이 중단된 간이 매점은 최근 운영자 선정을 마치고 개점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10월 중에는 정식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 062-510-921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있는 미끄럼틀, 게임기 등 각종 놀이기구와 벽걸이 TV 등도 구비돼 있다.

또 자격증을 갖춘 보육 도우미가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다.

놀이방 이용 대상은 만 3세부터 7세 이하 어린이며 대극장과 소극장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한편 현재 운영이 중단된 간이 매점은 최근 운영자 선정을 마치고 개점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10월 중에는 정식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 062-510-921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디자인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열기 후끈

최종 마감 89개국 3,071명 응모…이탈리아 디자인붐 13일까지 1차 심사

오는 10월 5일 개막하는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디자인 국제 공모전에 무려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디자인 비엔날레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1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LED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마감한 결과 전세계 89개국 3천71명이 참가했다.

'공간을 밝히는 불'(Bright LED)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실내 공간 연출, 유희조경, 경관조경 등 3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재단은 이탈리아의 디자인 전문 포털사이트인 디자인붐에 의뢰, 6일부터 오는 13일 까지 1차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20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되며 1등은 3천달러, 2등 1천5백달러, 3등 5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재단은 수상작을 포함해 공모 3개 부문에서 각각 25점씩의 우수작을 선정, 2007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에 출품한다.

또 "남도의 '퀸'을 찾아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광주와 호남의 디자인 아이콘 2007개를 찾는 '남도 디자인 아이콘 2007 공모'전에도 모두 1천930개의 디자인 아이콘이 접수됐다.

남도만의 독특한 문화자산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문화상품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의 입상작들은 남도 디자인 상품으로 개발된다.

재단은 전문 디자이너들에게 수상작의 상품화를 맡겨 향후 '퀸'이라는 문화브랜드로 개발,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 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세계디자인 평화선언 기념 조형물 '평화의 빛'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조형물은 에너지가 넘치는 소용돌이 물기둥을 형상화한 것으로 5·18 광주항쟁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15.18m 높이로 세워진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김정선 개인전

12일까지 무등갤러리



현대인들의 욕망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는 김정선씨가 12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현대인의 욕망'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명품 핸드백과 가방을 통해 브랜드에 얹매이는 현대인들의 이중적인 소비심리를 고발한다.

조선대학교 대학원(순수미술)을 졸업한 뒤 남부현대미술제, 그리미회 초대전 등에 참가했으며, '토만사' 크로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8-6624.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박종원 '새김' 展 16일까지 문화갤러리

서각과 회화의 어우러짐



‘청심’

서각과 박종원씨가 '새김'을 주제로 문화갤러리에서 오는 16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박씨는 전통서각을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해석하고 있는 작가. 10여년 동안의 작업을 결산하는 이번 전시에서 옥돌과 전통기와에 선인들의 경구와 명문 등을 새긴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그는 서체 자체를 옮기는 단순한 기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료는 물론 형식과 주제면에서 새로운 기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제작된 '청심'은 평범한 기와에 색을 입히고 칼을 넣어 글씨를 새긴 것으로서 서각과 회화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박씨는 "글쓴이의 필의(筆意)를 도의(刀意)로 옮긴다는 것도 만만찮

은 일임에 틀림 없지만 독창성이 약화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며 "새로운 작업으로 서각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서각전, 남도서예전, 전라남도 서예전 등에서 특선했으며 현재 사)한국서각협회 광주지회장을 맡고 있다. 062-233-6969.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심포지엄 14일 광주비엔날레 회의실

최근 막을 내린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14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지현원(광주일보 전 편집국장)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모하메드 압델 라이브(카이로 웨킬랫디 고우리 아트센터 감독), 이종호(서울 세계무용축제 예술감독), 이인원(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대표)씨 등이 카이로

실험극장 축제 성공 사례로 본 세계화 전략', '한국 공연예술제의 현황과 문제점',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 타니니에이마 사나밤(인도립드라마학교 무대감독), 장광열(한국춤연구소장), 김도일(기획시대 이사)씨의 토론이 이어진다. 문의 062-521-3223.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http://www.megabox.co.kr)

**데가박스**

구. 런던 악국사거리 Happy Time ◇ 예매 1544-0600

1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최고급  
2관 본 얼티메이터 / 스타디스트 (12세)  
3관 마이파더 (15세)  
4관 권순분여사 낭치사건 (15세)  
5관 권순분여사 낭치사건 (15세)  
6관 디스티비아 / 즐거운 인생 (전체)  
7관 척 앤 라리 (15세) / 본 얼티메이터 (12세)  
8관 즐거운 인생 (전체)  
9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일 힐링데이 티켓이 종료됐습니다.  
• 미프유 주차장 이용 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 고지에 허용) 34시간 초과시 정상 요금 부과  
★ 무료 팁콘 뒤편 티켓만 있으면 팁콘이 무료

**영화안내**

**Happy Time**

Happy Time

구. 런던 악국사거리 Happy Time ◇ 예매 1544-0600

1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최고급  
2관 본 얼티메이터 / 스타디스트 (12세)  
3관 마이파더 (15세)  
4관 권순분여사 낭치사건 (15세)  
5관 권순분여사 낭치사건 (15세)  
6관 디스티비아 / 즐거운 인생 (전체)  
7관 척 앤 라리 (15세) / 본 얼티메이터 (12세)  
8관 즐거운 인생 (전체)  
9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5월 1일부터 메가